

4월을 새겨온 문학... 70여 년 역사를 담다

제주민예총 4·3예술축전
4·3문학 아카이브 기획전
1948년부터 근작까지 망라

6월 5일부터 포지션민제주
첫날 이산하 시인 초청 대담

제주4·3은 제주섬에서 금기의 언어였다. 오랜 침묵을 깬 건 1978년 현 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었다. 사건 발발 30년이 지나서야 4·3의 비극을 증언하는 '4·3문학'이 비로소 시작된다. 제주4·3평화재단이 2012년 4·3평화문학상 수상작을 내기 전부터 제주 시인과 소설가들이 4월을 문학으로 살려왔다. 4·3평화문학상에 단체 부문 수상이 있다면 그 상은 제주작가회의를 중심으로 한 지역

문학인들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한다.

4·3문학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자료전이 펼쳐진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제주민예총(이사장 이종형)의 '4·3항쟁 72주년 27회 4·3문화예술 축전' 첫 행사로 '4·3문학 아카이브 기획전-지문'이 열린다.

제목에 달린 지문은 종의적이다. 4·3을 문학에 그려온 지문(紙紋), 제주섬 역사를 문학의 언어로 기억하려는 지문(誌文), 4·3문학의 정체성이 새겨진 지문(指紋), 제주 땅이 살아온 무늬인 지문(地紋)이다.

이 전시에서 정리한 4·3문학은 1948년 이수형의 '산사람들'에서 2010년 이후 근작까지 달는다. 그 흐름은 '순이삼촌'을 전후로 4개 시기로 구분했다.

4·3의 와중엔 이수형의 시 '산사

람들', 함세덕의 희곡 '산사람들'이 있었다. 제주민예총은 이들 작품이 당대적 입장에서 4·3을 이야기한 최초의 발화라고 했다. 1978~1987년엔 오성찬의 '단추와 허리띠', 현길연의 '우리들의 조부님' 등 4·3 문학 1세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나왔다. 고시흥의 '도마칼', 한림화의 '불턱'도 이 시기 소설이다. 1987년엔 4·3을 항쟁적 시각에서 형상화한 이산하의 장편시 '한라산'이 나왔고 시인은 육고를 치르게 된다.

6월 항쟁은 4·3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이끌었고 1987~1999년에는 김관후, 김석희, 김창집, 오경춘, 이석범 등 4·3의 서사화를 시도하는 작가들이 늘어난다. 재일작가 김석범의 '화산도'가 우리말로 일부 번역됐고 북한 소설인 김일우의 '섬사람들'도 남한에서 출간됐다. 김용해, 김명식,

문충성, 강덕환, 김경훈, 문무병 등 시 창작도 잇따랐다. 4·3문학 운동을 통해 축적된 역량은 1998년 제주작가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2000년 이후엔 제주 4·3 특별법 제정이 창작에 영향을 미쳤다.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의 출발이라는 입장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문학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시, 소설을 넘어 희곡, 동화 출간도 잇따랐다.

전시는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포지션 민 제주(제주시 관덕로6길 17 2층), 4·3문학 조판본, 청년문학 운동 자료, 이산하 항소이유서 등을 볼 수 있다.

첫날 오후 5시에는 이산하·김수열 시인의 대담 '천둥같은 그리움'이 진행된다. 개막 행사는 오후 7시에 예정되어 있다. 문의 758-0331.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아직도 그림고 그리운 달빛의 기억

양민희씨 두 번째 개인전
흑백 주조 입체회화 기법

지난해 여름 달빛이 떠있는 작품들로 제주도문화회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던 양민희 작가. 이번 초여름에 또 달을 들고 왔다. 지난 1일부터 서귀포시 예술공간 파도(소암로 29)에서 시작된 '달의 기억'전이다.

이번 두 번째 개인전에는 회화 20여 점이 펼쳐지고 있다. 양 작가가

불잡은 달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담겨있다. 그는 섬, 바다, 하늘 등 제주의 대표적인 자연물에 상징성을 부여해 독특하고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지난 개인전에도 그랬듯 작가는 모델링페이스트(Modeling Paste)를 사용한 부조회화(입체회화) 기법을 선보이고 있다. 빛바랜 흑백사진의 색을 기본으로 거칠면서도 때로는 부드럽게 표현된 섬과 바다가 등장한다.



양민희의 '두 개의 달'.

양 작가는 "달은 내 마음을 비추고 아무만지는 형상으로 타자이면서 자아"라며 "그래서 나에게 그리움은 타

자에 대한 연민"이라고 했다. 전시는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064)733-7374.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서귀포문학작품 전국 공모

사단법인 한국예총 서귀포지회(지회장 윤봉택)가 2020년 제4회 서귀포문학작품 전국 공모전을 벌이고 있다.

공모전은 서귀포의 자연환경, 문화, 인물, 제주신화, 옛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 시조, 소설, 동화, 수필 등 5개 장르의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기성작가도 응모 가능하다. 시와 시조는 5편 이상, 소설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수필 2편 이상, 동화는 분량 제한이 없다. 접수는 9월 2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이루어진다. 문의 064)739-3287.

박물관 자원봉사자 모집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유식)은 성인 대상으로 제12기 신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달 30일까지 전시 안내 분야에서 활동할 자원자 10여 명을 모집한 뒤 서류전형과 교육, 실습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과 함께 국립제주박물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립제주박물관 누리집 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4)720-8106.

방과후 문화예술교실

섬아이뮤지아트센터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6월부터 방과후 문화예술교실을 운영한다.

제주도교육청 마을키움터 사업으로 마련되는 이번 과정은 생활악기, 뮤지컬 연기, 뮤지컬 댄스, 합창, 아카펠라, 교마작곡가 수업이 예정돼 있다. 강의는 매주 화~목요일 섬아이뮤지아트센터(제주시 서광로256)에서 열린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오후 3~5시, 고학년은 오후 4~6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 문의 064)753-8996.

시민배우·거리공연자 모집

사단법인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이사장 안정업)이 서귀포문화제야행 7월 11일 '시간여행 그날, 목사- 탐라의 꿈'에 참여할 시민배우와 '출발생이 놀이터' 거리공연 예술가를 공모하고 있다.

'시간여행 그날, 목사'에서 시민배우들은 대신, 상궁, 나인, 양반 등의 역할을 맡는다. 거리 공연 예술가는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이충집거리에서 공연을 벌인다. 신청은 6월 14일까지 이메일(lovejeju2019@naver.com)로 받는다. 문의 010-7390-5985.

고재만의

제주어기념관

<206>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준네 골았저. “돌림빙 코로나19 따문 하영덜 속았수다. 하르바지마썸, 요센 일 하영 입낙훈 거(생활 속 거리 두기) 잘 지켜나감시민 좋아질 텨름마썸. 웃긔실 사람덜은 수썸 하영덜 하영 좋아졌젠 홀데다.”

○멍이 골멘, “누님- 경 하난 물질 하레도 가지쿠다양. 누님이 물질할때 가 난 길 좋아마썸. 졸말이우다양.”

준네 골았저. “하르바지- 경 하민 이제랑 놀레 글귀 작아주켄훈 거 작아줍서, 고지레 내창 어염인 불고롱흔 꽃섬덜이 봄 낙름에 혼들 혼들 하영섬데다.”

*** 제주어 풀이**

*속다(쑈다) : <음직>어려움이나 수고를 당하다. 욱보다.

*일 하영 입낙훈 거 : 일하며 질서 지키기(생활 속 거리 두기).

*웃드르(난산,산촌,중산간) : <이름>바닷가와 가까운 일주도로와 멀리 떨어진 한라산 쪽에 가까운 지방. 중산간 지방.

*수썸(수눔) : <이름>농사지를 때 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해주기로 하여 힘을 모아 하는 일.

*물질 : <이름>해녀가 바다에 나가 잠수하며 해산물을 잡는 일.

*내창(내) : <이름>내를 이루는 골짜기. 개천, 하천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나, 땅이름과 더불어 쓰일 때는 '내'로만 쓰임.

*불고롱하(불고소롱하, 불골소롱하, 불그스름하) : <그림>말그레하다.

-부호-/<이름><이름>(명사)/<그림><그림>(형용사)/<음직><음직>(동사)/<어찌><어찌>(부사)/<대어름><대어름>(대명사)/<렘><렘>(수사)/<느낌><느낌>(감탄사)/<토><토>(조사)/<때소><때소>(명사)/<먹은말><먹은말>(명사) (출처: '제주말 큰사전' 총상조자, 한국문화사,1991)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서운 작가가 이끄는 ‘상상숲 여행’

제주 청년작가 이서운씨가 코로나19 시대에 떠올린 건 장 차크 루소의 저 유명한 말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우리’로 묶인 사회에서 서로 만날 수 없는 ‘비대면’이라는 낯선 문화가 서서히 스며드는 과정에서 자연이 품은 가치가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전으로 6월 2일부터 갤러리 거인의 정원(제주시 대원길 58, 1층)에서 개인전을 펼치고 있는 이서운 작가. 그가 ‘상

상숲으로의 여행’이란 제목으로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이 시절에 관람객들을 초록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이 전시엔 꿈을 꾸듯 몽환적인 숲이 등장한다. 상상 속 장면으로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인간의 운명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묻는 듯 하다.

전시는 이달 14일까지 계속된다. 이 작가는 제45회 제주도미술대전 선정작가상 수상 경력이 있다. 전선희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텍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텍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금·6급)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텍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텍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텍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로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텍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텍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텍스의 센소그래프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텍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0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텍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제주시청

와이텍스 보청기

광양사거리

CGV

화북